인수위, '국민 눈높이' 맞는 업무보고 주문

11일 국방·중기청부터…"부처의 시각만 담으면 안돼"

공약이행 계획 등 7개 지침 … 파견 근무 53명도 확정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기자실 브리핑에서 "11일부터 17일까지 주말 없이 일주일 간 진행한다"며 "첫날 업무보고 대상은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업무보고에 포함해야 하는 7대 지침으로 ▲부처 일반현황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그러면서도 전체를 관통하는 업무보고 기조를 '국민 눈높이'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당선인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중과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대기업·수출 위주 경제정책' 등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는 국민적 판단에 근거한 냉엄한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인수위의 요청에도 불구, 이 같은 정책들에 대해 부처의 시각만을 담아 보고를 할 경우에는 인수위와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개 지침은 17대 인수위 때와 거의 같지만 한 항목만 다르다. 그 한 가지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이다. 17대 때는 '규제개혁 및 완화 방안'이 들어갔다.

박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 첫 회의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된 관행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고쳐야 할 관행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내부진단으로 불합리한 문제를 고친 뒤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무보고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이 첫 업무보고 대상 부처라는 점이다. 5년 전 이명박 인수위에서는 첫날 업무보고 대상이 교육부 한 곳이었다.

국방부의 경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관심과 함께 관리 능력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중기청은 당선인이 선거 후 경제단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처음 찾아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며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이날 인수위에서 파견 근무할 전문위원 28명, 실무위원 25명 등 정부 공무원 53명을 확정했다.

한편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수석부위원장, 인요한 윤주경 김중태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8대 대선 호남 몰표는 충동적 선택"

박준영 지사 발언 파문

민주당 "호남인 명예 훼손" 사과 요구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8일 18대 대선에서 표출된 호남 민심을 '충동적 선택'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호남 3개 시·도당은 이날 박 지사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박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지사는 8일 오전 광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호남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에 대해 "무겁지 못했고 충동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그때그때 감정에 휩쓸리거나 어떤 충동적인 생각 때문에 투표하는 행태를 보이면 전국하고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 지역 출신으로 오랫동안 지지를 해준 값어치 있는 분이라면 호남인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했어도 그럴만하다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호남인 스스로 정치를 잘못했다고 평가한 세력에 대해 몰표를 준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지역발전 측면에서 좋은 투표행태는 아니라고 많은 사람이 지적한 것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이며 이번 대선에서 지역민들의 투표행태를 지적했다.

박 지사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박 당선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전북도당은 합동논평을 내고 "국가와 민족, 지역의 앞날을 위해 고뇌하고 스스로 선택한 호남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을 뿐 아니라 호남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개인 차원의 시각이 옳고 그름을 떠나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민주통합당 소속 광역단체장이란 분이 이렇게도 호남의 선택을 잘못이라고 규정하며 몰아붙일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은 이어 "호남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데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발언 배경과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지난해 12월19일 투표를 마친 뒤 "호남인은 선거과정에서 늘 역사적인 선택을 해왔다"고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소속인 박준영 지사는 박근혜 새 정부 들어 총리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 당선인 행정개혁 '시동'

부처이기주의·중복행정 예산낭비 '고질병' 메스

10개 부처 296개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조사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부처 이기주의와 중복투자라는 '고질병 수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대통령직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내 중복행정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를 통해 혈세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관행을 고쳐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전날 첫 인수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돈 들여서 정책 만들고 저쪽에서 또 정책을 만들거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할 때 세금이 낭비되며 효율성도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며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해야 하느냐는 목표를 보면 부처 이기주의라는 얘기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첫 대상은 10개부처 296개로 파악된 사회복지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조사는 공무원이 복지예산을 횡령·유용하거나, 부적격자들이 대거 지원금을 받는 누수 사례에 맞춰졌지만 이번에는 중복된 지점을 찾아내고 효율적인 틀로 바꾼다는 차원에서 지원 종류와 내용에 '현미경'을 댈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 조사 후 해법으로 우선 거론되는 것이 컨트롤타워의 설치다. 관가에서는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위원회,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도록 하고 경제·외교안보통상에도 비슷한 회의체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의 정례 국가정책조정회의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총리실이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정책충돌과 갈등의 조정을 도맡도록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총리제와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작은 청와대' 모토 민정수석실 없앨듯

청와대 조직개편 방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조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어서 인수위는 '작은 청와대'를 모토로 조직개편을 시도할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당선인이 모든 정부기관이나 국정운영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의 역할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에 국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으로 미뤄 기존 청와대 조직 가운데 개편이 불가피한 자리는 일단 민정수석비서관이다.

민정수석의 주요 기능은 친인척 및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 인사 검증 등으로 요약되는데 박 당선인이 신설하기로 한 특별감찰관제와 기회균등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하는 기회균등위를 신설해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에 사회적 소수자 배려가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 지연이나 학연 등 인맥에 의한 편중인사는 없는지를 확인,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신설되는 기회균등위는 인사 기능까지 하게 될 전망이다.

인수위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27일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이나 보좌관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집무실 이전 방안을 제안했으며, 박 당선인은 당시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회의에 참석한 각분과 간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 "복지재원용 직접증세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보다는 세정에, 세율 인상보다는 세원 확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총괄했고 현 인수위에서 고용복지 분과 위원을 맡은 안종범 의원은 세율 인상보다 세원 확대를 중시,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세제개혁을 주장해 왔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서도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된 세금부터 제대로 거둘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인수위가 전날 통보한 경제1분과 파견 공무원 면면에서도 나타난다.

기획재정부 측에서 파견한 인사 중에는 세제 전문가가 없고, 국세청으로부턴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세원정보과장 등을 지낸 2명이 파견됐다. 세제 전반을 뜯어고치기보다는 탈세 방지 등 세정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인수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국세청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FIU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이 FIU가 보유한 수상한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이 쉬워지면 소득 탈루를 보다 쉽게 잡아낼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넘는 지하경제를 6%만 양성화해도 매년 1조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매투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투자 가능
▶투자대비 고수익 보장
NPL투자
▶낙찰받을 확률 100%
▶양도소득세 無
▶소액투자 가능
▶단기내 투자금 회수
★특수비법 배우실 분 상담★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ASSET KOREA since 200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상담전화 정현로이사 010-5879-0005
☞ 물류센터 [전북김제] ☜ 대8076㎡ , 건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6억 5천
☞ 공장[옹전동] ☜ 대2315㎡ , 건1542㎡ 감정가 22억 최저가 14억
☞ 주유소 [나주남평] ☜ 대4428㎡ , 건55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5억4천
☞ 신안압해 [횟집,판매] ☜ 대4706㎡ , 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8억
☞ 원룸[계림동] ☜ 대333㎡ , 건803㎡ 감정가 6억7천 최저가 3억7천
☞ 상가[신창동] ☜ 대 67㎡ , 건 134㎡ 감정가 2억5천 최저가 1억1천
☞ 공장 [나주공산] ☜ 대29710㎡ , 건1826㎡ 감정가 17억 최저가 8억
☞ 숙박시설 [치평동] ☜ 대704㎡ , 건2042㎡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 공장 [장성동화] ☜ 대1983㎡ , 건2320㎡ 감정가 7억 최저가 3억 9천
☞ 임야 [전주완산] ☜ 대지 20975㎡ 감정가 3억3천 최저가 1억3천

상담전화 김 종 원 이사 010-8227-7759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1506평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최저가 25억5천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3289평 ▷건물1601평 ▷감정가 52억4천 ▷최저가 36억7천
☞ 운암동 (근린시설) ☜ ▷대지 352평 ▷건물 1047평 ▷감정가 39억5천 ▷최저가 27억7천
☞ 화정동[예식장] ☜ ▷대지330평 ▷건물357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1억(협의후결정) 요양병원적합
☞ 첨단 (오피스텔) ☜ ▷대지154평 ▷건물389평 ▷감정가 13억5천 ▷최저가 10억8천 수익률 최고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31일open 예정인 (주)솔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십니다.
* 찬모(여)2명,설겆이(여)1명,홀서빙6명,매니저(남,여)2명,매점(여)1명,경리(여)1명,영업부(남,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퇴직금,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풍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